

일본, EEZ에서 희토류 대량 발견

NHK, 2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680만톤 매장 ... 해저유전 기술 응용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심해에서 2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대량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이 확인됐다고 NHK방송이 6월28일 보도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대학의 조사와 분석 결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부근 수심 5600m 해저에서 희토류가 대규모 매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 해저에서 대량의 희토류 매장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며, 매장량은 일본 소비량 220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저의 진흙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LCD(Liquid Crystal Display) TV에 사용되는 테르븀 등 희토류가 고농도로 함유돼 있으며, 농도와 광대한 진흙의 면적 등으로 미루어 약 680만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인된 희토류가 심해에 묻혀 있지만 해저 유전으로부터 원유를 뽑아 올리는 기술을 응용하면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가 보유한 해양자원 탐사선에 굴착기계를 탑재하면 희토류를 함유한 진흙을 하루 1만5000톤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희토류는 세계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각종 첨단산업에 연간 3만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량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2010년 센카쿠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 사건 이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일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2>